

제 15회 무등기 전국고교야구 팡파르

광주일고-덕수고 올 2관왕 다툼 관심

(황금사자기 우승) (대통령배 우승)

제 15회 무등기 전국고교 야구대회가 9일 광주 무등경기장 야구장에서 개막돼 8일간의 열전에 돌입한다.
광주일보사와 대한야구협회가 공동주최하는 이번 대회에는 광주일고, 동성고, 장충고, 경기고, 공주고, 상원고, 부산공고 등 지역예선을 통과한 경쟁한 야구 명문 22개팀이 출전해 모교의 명예를 걸고 우승에 도전한다.



Table showing the tournament schedule for the 15th Mu-deunggi National High School Baseball Tournament, including dates, times, and participating teams.

총 22개팀 출전...열전 8일 돌입

세광-경기고 오전 10시 개막전

오늘의 무등기 야구

- 1회전
세광고-경기고(10시)
전주고-공주고(12시30분)
구미전자공고-동성고(3시)

내일의 무등기 야구

- 1회전
상원고-덕수고(10시)
강릉고-부천고(12시30분)
진흥고-장충고(3시)

대회는 9일 오전 10시 세광고와 경기고의 개막전을 시작으로 6월의 신록과 함께 고교야구의 향연을 펼치게 된다.
개막전에 이어 전주고-공주고, 구미전자공고-동성고 16강행을 놓고 각축을 벌인다.
구미전자공고와 동성고의 1차전은 참과 방패의 대결로 눈길을 끈다.
지난 13회 대회 1회전에서 우승후보 광주일고를 제압하고 준우승을 차지했던 구미전자 공고는 김도산·장웅·이희웅의 막강 클린업 트리오를 내세워 우완 정통파 조우상과 임익현, 좌완 배진선, 언더 고영표 등의 풍부한 투수력을 자랑하는 광주 동성고를 상대로 돌풍을 준비하고 있다.
이번 무등기 대회는 지난해 우승팀 장충고가 2연패를 노리고 있는 가운데 올 시즌 황금사자기 우승팀 광주일고와 대통령배 우승팀 덕수고가 시즌 2승을 위해 각축을

벌일 것으로 예상된다.
전국대회 22회 우승에 빛나는 광주일고는 KIA 1차 지명을 받은 '포커 페이스' 정성철과 정교한 제구력의 장민재 등 원투 펀치를 내세워 올해 첫 전국대회인 황금사자기에서 우승에 이어 5번째 무등기 우승에 도전한다.
지난해 우승팀 장충고는 우리 히어로즈의 1차 지명을 받은 140km의 중반대의 강속구를 보유한 좌완 강윤규와 호타준족 김준완과 김경환의 타선을 바탕으로 대회 2연패를 노크한다.

창단 28년 만에 대통령배 우승컵을 거머쥔 덕수고는 두산과 일찌감치 계약을 마친 구속 150km대의 초특급 투수 성영훈과 사이드 암 서투원과 좌완 손정욱으로 이어지는 경쟁한 마운드를 바탕으로 시즌 2연패에 나선다.
경기고는 LG 유니폼을 입게 된 유격수 겸 투수로 활약하고 있는 오지환을 중심으로 클린업 트리오 김중문·임경모·이준경의 매서운 공격력과 짜임새 있는 팀워크로 올 대통령배 준우승에 머무른 한을 무등기 우승으로 풀겠다는 각오다.

한편, 이번 대회는 대한체육회와 광주시체육회, 전남도체육회 등이 공동 후원하고 Xsports가 중계할 예정이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마치 손으로 다루듯이 러시아 체조 선수 올라 카프라노파가 8일(한국시간) 이탈리아 튜린스 올림픽아레나에서 열린 제24회 유럽 리듬체조 챔피언십에서 멋진 연기를 선보이고 있다. /연합뉴스

남자배구 베이징행 좌절

한국, 태국 꺾고 4승3패 불구 이탈리아·일본에 전적 밀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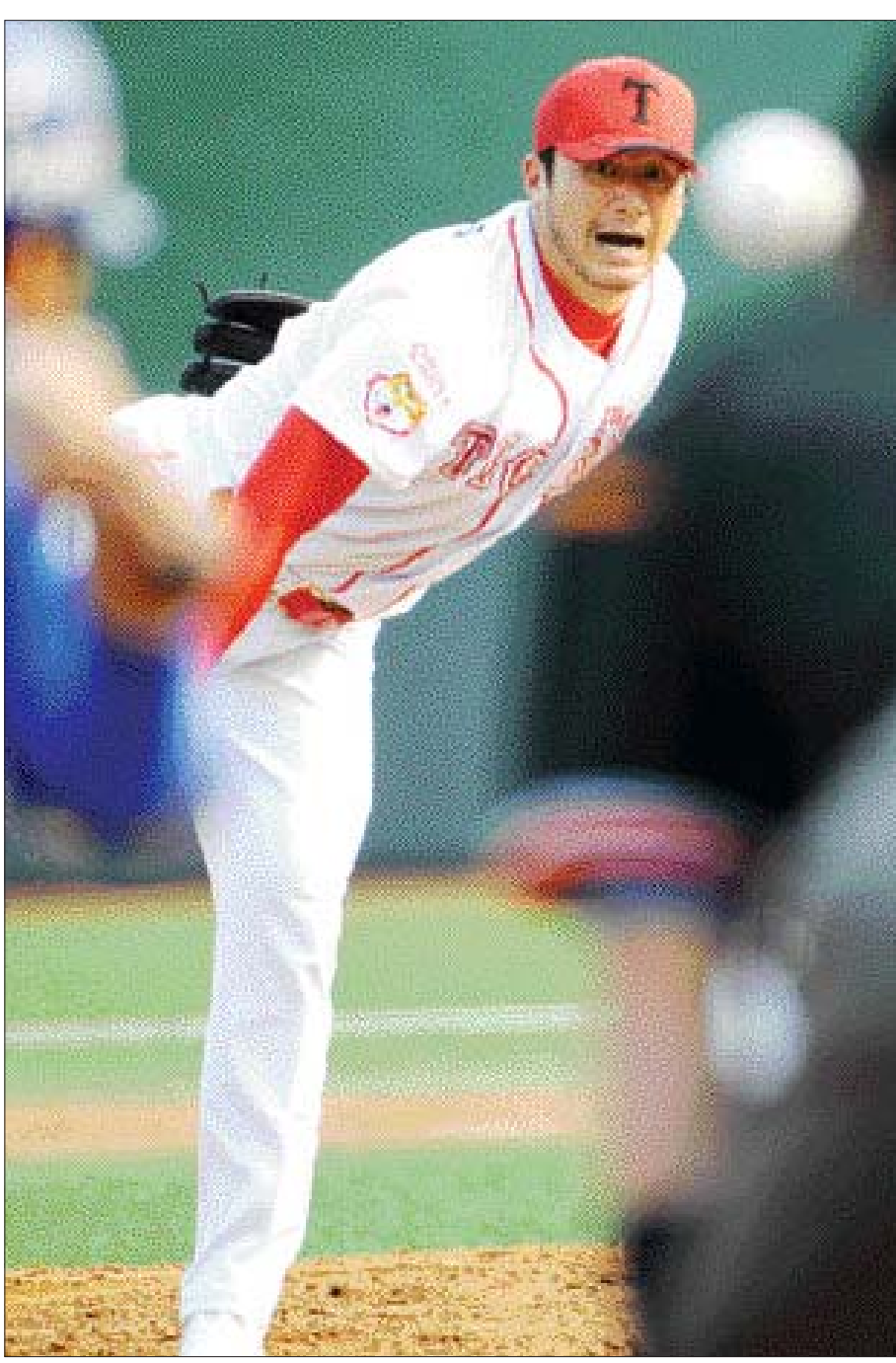
한국 남자 배구 대표팀이 2004년 아테네 올림픽에 이어 베이징 올림픽에서도 출전권 획득에 실패했다.
한국은 8일 도쿄 메트로폴리탄 체육관에서 계속된 2008 베이징올림픽 세계예선 풀리그 7차전 마지막 경기에서 태국을 세트스코어 3-1(25-18 20-25 25-18 25-21)로 꺾었다.
한국은 이 승리로 대회를 4승3패로 마무리했지만 올림픽 티켓은 이어진 경기에서 아르헨티나를 3-2(25-19 25-19 22-25 21-25 15-5)로 누르고 7전 전승으로 예선

전 전체 1위에 오른 이탈리아와 5승1패로 아시아 1위를 확보한 일본에 돌아갔다.
한국 남자배구는 이로써 2004년 아테네 올림픽에 이어 2차례 연속으로 올림픽 진출 꿈이 무산됐다.
이와 함께 지난 5월 예선전을 치른 여자 대표팀에 이어 남자마저 올림픽 티켓을 얻지 못함에 따라 한국 배구는 1980년 모스크바 올림픽 이후 처음으로 남녀가 모두 올림픽에 가지 못하는 수모를 겪게 됐다.
한편 베이징 올림픽에는 일본,이탈리아와 함께 이미 출전이 결정된 중국(주최국), 브라질, 러시아, 불가리아, 이집트, 세르비아, 미국, 베네수엘라 등 8개국과 독일, 포르투갈 예선에서 1위를 차지한 독일, 폴란드 등 12개국이 나간다.

전미정 日투어 시즌 첫 승

일본여자프로골프투어에서 뛰고 있는 전미정(26·진로)이 시즌 첫 우승을 거뒀다.
전미정은 8일 일본 시가현 더컨트리클럽(파72·6천619야드)에서 열린 리조트 트리스트 레이디스 최종 라운드에서 3언더파 69타를 쳐 4라운드 합계 12언더파 204타로 정상에 올랐다.
일본여자프로골프 상금4위에 올라 있는 요코미네 사쿠라를 3타차로 따돌린 전미

정은 시즌 첫 우승과 함께 일본 무대 통산 8승째를 올렸다.
작년 10월 히구치하시코 오츠카 가구 레이디스 이후 7개월만에 우승컵을 떠낸 전미정은 우승 상금 1천260만엔을 받아 상당한 경쟁에 뛰어 들었다.
전미정이 이번 대회를 제패하면서 올해 열린 일본여자프로골프투어 13개 대회 가운데 절반에 가까운 6개 대회에서 한국 선수가 우승했다.



23일만에 부상에서 복귀한 KIA의 서재응이 8일 무등경기장에서 벌어진 삼성과의 경기에서 역투하고 있다. 서재응은 6이닝동안 무실점으로 승리투수가 됐다. /위적림기자 jrwi@

돌아온 서재응 완벽투 KIA 6월 도약 날개짓

삼성에 4-0 완승



'서재응이 돌아왔다.'
KIA 타이거즈가 8일 광주 무등경기장에서 벌어진 삼성 라이온즈와의 8차전에서 부상에서 복귀한 서재응의 호투로 4-0으로 승리, 5위 한화와의 3게임차가 됐다.
서재응은 오른쪽 허벅지 부상으로 23일만에 마운드에 올랐지만 1회 3명의 타자를 플라리로 잡아내면서 삼자범퇴로 산뜻한 출발을 했다.
직구와 체인지업을 중심으로 삼성 타자를 상대한 서재응은 직구 최고구속이 146km를 기록하는 등 20여 일간의 공백에도 체조의 컨디션으로 에이스의 건재를 과시했다.
5회까지는 한치의 양보도 없는 광광한 투수전이 펼쳐졌다.
양팀의 선발 서재응과 톰 선이 5회까지 상대 타선에 허용한 안타 수는 2개와 3개, 4사구는 하나씩 주고받았다. 탈삼진도 각각 3개를 뽑아내는 등 치열한 선발대결이 펼쳐졌

다.
지루했던 '0'의 행진은 6회 말 이재주의 볼넷을 시작으로 무너졌다.
이재주의 볼넷과 김원섭의 중전안타로 만들어진 2사 1-2루 찬스에서 이현근의 좌투이 2루타가 터지면서 점수는 2-0이 됐다.
7회에는 승부에 췌기를 박는 이용규의 2루타가 터졌다.
김종국이 볼넷을 골라 나간 뒤 이용규가 중견수 키를 넘기는 2루타를 때리면서 1타점을 올렸다. 이재주의 적시타로 한 점을 더 보탠 KIA는 4-0까지 달아나면서 승리를 굳혔다.
서재응은 6이닝 2피안타 5탈삼진 무실점으로 완벽투구를 선보이며 지난 5월10일 이후 승리투수가 돼 시즌 3승째를 올렸다.
한편 KIA의 수비가 펼쳐지던 7회초 무등경기장에 쏟아진 폭우로 20분간 경기가 중단되고 기자실과 3루측 덕아웃이 침수되는 해프닝이 벌어졌다.
5시부터 대전구장에서 벌어졌던 한화-우리 경기는 우천으로 노게임이 선언됐고, 잠실에서 열릴 예정이었던 두산-LG경기는 우천으로 취소됐다.
SK는 사직에서 열린 롯데와의 경기에서 3-1로 이기며 좌측의 5연승을 이어갔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백치승 6이닝 1실점 쾌투

우완 투수 백치승(28·샌디에이고 파드리스)이 이적 후 두 번째로 선발등판해 안정된 투구로 버드 블랙 감독에게 신뢰를 안겼다.
백치승은 8일 캘리포니아주 샌디에이고 팻파크에서 계속된 미국프로야구 뉴욕 메츠와 홈경기에 선발 등판, 6이닝 동안 안타 7개를 맞았지만 위기 관리 능력을 보이며 1실점으로 잘 던졌다. 그는 1-1로 맞선 7회부터 브라이언 코리로 교체됐다.
평균자책점은 5.60에서 5.01로 낮아졌다.
/연합뉴스

롯데 마린스 주포 솔레타 도쿄돔 천장 맞힌 홈런포

일본프로야구 지바 롯데 마린스 주포 홀리우 솔레타(33)가 도쿄돔 천장에 달린 조명탑을 맞히는 비거리 150m짜리 대형 홈런을 쏘아 올렸다.
8일 일본 언론들에 따르면 솔레타는 7일 벌어진 요미우리-롯데전에서 6회 도쿄돔 좌측 천장에 달린 조명탑을 맞히는 대형 타구를 날렸다. 이 타구는 '외야 페이저' 천장에 설치된 조명탑이나 스피커를 맞으면 홈런으로 인정한다'는 도쿄돔 특별 규정에 따라 '인정 홈런'이 됐다.